

【 문제-1 】 (30점)

甲은 A+B+C로 구성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고, 구성 C는 특허발명의 전용품이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1) 乙이 甲의 허락을 받지 않고 C+D를 판매하고 있다. 乙은 C+D는 D의 부가로 인하여 자신의 판매 행위는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8점)
- (2) 乙이 C' (C'는 C와 균등의 물건이다.)를 판매하고 있는 경우, 乙의 판매가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7점)
- (3) 만약, 甲의 특허발명이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 C를 甲이 乙에게 양도했다면, 乙이 그 물건 C를 이용하여 해당 방법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8점)
- (4) 만약, 甲의 특허발명이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 C와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甲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하시오. (7점)

【 문제-2 】 (20점)

甲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인코딩 및 디코딩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특허는 표준제정기구에 의해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甲은 해당 특허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를 허락한다는 프랜드(FRAND) 선언을 하였다. 乙은 甲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였다. 甲은 乙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발명의 사용에 대한 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甲이 프랜드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1) 甲의 침해금지청구소송에 대한 인용 여부를 논하시오. (8점)
- (2) 乙의 권리남용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 (3) 甲이 침해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의 승인 여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7점)

【 문제-3 】 (30점)

甲은 “A, B 및 C로 구성되는 클러치 구동축 제어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乙은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甲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乙은 위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특허법원은 甲의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정정심판과는 별도로 특허의 정정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포함하여 특허의 정정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乙이 제기한 무효심판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 甲이 청구한 정정심판의 인용심결이 확정된 경우 무효심판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 (3) 甲은 “자신이 청구한 정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 전의 특허 청구범위를 기초로 한 진보성 판단은 무의미하게 되므로 상고심에서는 위 정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5점)
- (4) 乙은 “클러치 구동축 제어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A는 선행문헌 1에, 구성요소 B는 선행문헌 2에, 구성요소 C는 선행문헌 3에 각각 개시되어 있는바, 甲의 특허발명은 선행문헌과 명세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보아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甲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하시오. (10점)

【 문제-4 】 (20점)

甲은 A+B+C로 구성되는 발명 X를 완성한 후, 해당 발명의 사업화에 관심이 있는 乙과의 간담회에서 2015년 3월 2일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乙은 2015년 3월 27일 진행된 자신의 사업설명회에서 발명 X를 공개하고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해당 발명의 발명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甲은 2015년 8월 3일 발명 X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면서 특허출원서에 공지예외의 취지를 기재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2015년 3월 2일 乙과의 간담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물음 (1)과 (2)는 독립적이다.)

- (1) 2015년 3월 27일 乙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丙은 특허청에 “甲의 특허출원은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정보제공을 하면서 그 증거로서 乙이 제공한 사업설명회 자료를 첨부하였다. 丙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해당발명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2015년 3월 27일의 공개는 乙이 하였으므로 공지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丙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8점)
- (2) 甲은 발명 X에 대한 특허출원 후 연구를 계속하여 발명 X에 대한 개량발명 X'를 완성하였다.
 - 1) 甲이 자신의 발명 X와 X'를 하나의 출원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시오. (6점)
 - 2) 甲의 2015년 8월 3일 특허출원이 일본특허청에 한 출원인 경우 甲이 자신의 발명 X와 X'를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출원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시오. (6점)